

군산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활동 전개

군산시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보험가입률 제고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군산시의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대상시설은 9종 1,533개소로, 이중 1,229개소가 가입했으며 보험 미가입 시설은 304개소이다.

가입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 장례식장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으로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발생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사고(원인불명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에 준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은 보험가입 대상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8개 부서를 추진반으로 구성해 1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전광판 및 전단지 등을 활용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자발적 보험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행복콜버스 13일 시범운영 개시

이용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it) 서비스 이륜차 행복콜버스 시범사업이 오는 13일(월)부터 군산시 최초로 화현면에서 시행된다.

2017년 전라북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화현면 행복콜버스 시범사업은 15인승 승합차를 활용해 화현면 관내 각 마을에서 면소재지(면사무소)까지 운행하며, 운행시간은 월~토요일(일, 공휴일 제외)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행복콜버스는 사전예약제로 이용시간 한 시간 이전까지 콜센터(☎ 465-9874)를 통해 예약해야 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 1회 300원(현금)의 요금 적용된다.

한편, 화현면에 이어 추가 시범사업 대상자인 임피면 행복콜버스 운행은 올해 하반기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기자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옛 군산세관 본관' 제545호로 지정  
'옛 남조선전기주식회사' 제724호 · '빈해원' 제723호  
'옛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제725호  
'옛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제726호

옛 군산세관 본관이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승격됐다.

〈본보 8월 7일자 1면〉 7일 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지난 6일 잠미동에 소재한 '옛 군산세관 본관'을 사적 제545호로 지정하고, 원도심 소재 ▲'옛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빈해원' ▲'옛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옛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를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사적 제545호로 지정된 옛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건립된 건물로, 대한제

국 시절 건립된 서구식 건축물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데 학술적·건축적 가치가 크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관세행정 및 경제수탈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현상이다.

또 등록문화재 제724호 '옛 남조선전기주식회사'는 1935년 전북과 충남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전기회사 본사 건물로, 일본인 거류지역과 관공서 인근지역의 가정 및 산업시설에 전기를 공급한 곳으로 산업 분야에서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이 등록문화재 제723호 '빈해원'은 1950년대부터 영업을 시작한 오랜 전통을 지닌 군산의 대표적인 중화요리 전문점으로, 내부 공간의 독특한 구성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등록문화재 제725호 '옛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은 1930년대 주택으로 내·외부 공간 구성 및 벽체 창호 등에서 원형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근대기 주택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등록문화재 제726호 '옛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는 근대기 공공기관의 관사로 지어진 건축물임에도 일본식과 서양식의 화려한 세부 표현 기법이 잘 남아 있으며, 일제강점기 군산 원도심의 공간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두양수 문화예술과장은 "역사·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史蹟)'으



옛 군산세관 본관이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승격됐다.

로 승격된 옛 군산세관 본관과 새로 등록된 4개의 문화재를 구 조선은행 등 원도심 내 문화재와 연결하여 문화관광자원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

/군산=김정훈기자

## 원광대학교병원, 보건의료협력 한-러 연수사업

전국 의료기관 대상 선정된 6곳중, 원대병원 러시아 입국한 3인이 연수

원광대학교병원이 한국보건의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8 한-러 보건의료 협력 연수사업 대상 병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러 보건의료 협력 연수사업이란 한국과 러시아간 협력 관계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이 연수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을 선정, 정부 지원하에 보건의료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된 6곳(경북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조선대병원)의 의료기관 중 원광대학교병원에서는 러시아에서 입국한 3인이 연수를 시작하게 됐다.

3인의 러시아 의사는 비노기과 KIRILL CHERNOV (키릴 제르너프, 1986. 남 오차포브스키 권역 제병원), 영상의학과 OKSANA ANOKHINA (옥사나 아노히나 여, 모스크바 69번 시립병원), 정형외과 ALEKSEI FARION (알렉세이 파리온, 1980. 남 튜멘권역 병원)으로 오는 9월 18일까지 해당 진료과에서 연수하게 된다.

원광대학교병원 최두영 병원장은



원광대학교병원이 한국보건의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8 한-러 보건의료 협력 연수사업 대상 병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본원은 해외 의료 진출뿐만 아니라 제생의사의 원훈에 걸 맞는 의료 협력 및 보건의료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한 의료 활동을 통하여 명실 공히 세계속에 우뚝 선 병원을 꾸려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원광대학교병원에서는 그동안 약 166명의 보건의료진이 연수를 마치고 돌아갔으며, 몽골에서는 원광대학교병원 연수 의료진이 모여 몽골의 방행사를 개최하는 등 후속 활동들도 이어지고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 익산시, 강력 공직쇄신 선언

용두사미 우려 비난여론도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언론들의 질타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익산시가 뒤늦게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해 운영주위를 철저히 강력한 인적쇄신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수십년 동안 민연패은 공직자 풍토를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을 까라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정현을 시장 임성이후 행정의 달인 이란 별칭까지 얻으며 공직쇄신을 외쳐왔지만 최근들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신랄한 비난을 듣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무려 5건에 이르는 음주운전 행태 적발 등 최근 익산시청 공직자 처신문제가 도마위에 오르자 부시장

까지 나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익산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직장 내 분위기를 저하시키는 행위, 업무면피, 책임전가·책임회피성 업무처리 행태 등으로 적발된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7일 새삼 공직부위기 쇄신을 외쳤다.

이를 두고 익산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공직기강 문제는 공무원의 기본 중 기본인데도 이제껏 다 잡지 못하고 이제와서 기강을 잡겠다고 목소리를 내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잠시 잠깐 공직기강 분위기를 잡겠다고 선언했다가 결국 용두사미가 되는 거 아닌지 지켜 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익산=우병희기자

## 금마농협, 고객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금마농협(조합장 백낙진)이 "폭염으로 지친 농업인과 고객들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금마농협은 오는 10일까지 매일 무더위 쉼터를 찾는 지역민들에게 아이스음료와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제공

한다. 이 농협은 지난달 30일에는 지역 마을회관과 경로당에도 시원한 생수를 지원하는 등 지역민들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백낙진 조합장은 "무더위 쉼터에도 금마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찾아내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ATV / 머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 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휘트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휘트  
동계대회의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휘트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인)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첫번째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 휘트